

임시술부작용 1만3천명

치료소요진료비 50억7천만원

난 13년간 시술결과

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
위해 지난 13년동안 무리
불임시술을 시행하는 바
이 기간동안 1만3천여명
작용을 일으켜 사후관리
은 것으로 밝혀졌다.
일 보사부에 따르면 가족
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
7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

임시술후 부작용 때문에 진료
를 받은 환자는 모두 1만3천70
명으로 환자별로는 난관시술
부작용이 전체의 84.7%인 1만1
천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
음은 정관시술자 1천4백81명
(11.3%), 자궁내장치술 부작용
5백16명(4.0%) 등이었고 이들
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
소요된 진료비는 50억7천만원
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.

새간장
91.4.6